

Strategy Idea

본 자료의 원본은 2020년 11월 16일 발간된 [2021년 전망 시리즈 11 - 핸드셋/전기전자: Recovery] 임



▲ 전기전자/2차전지
Analyst **주민우**
02. 6454-4865
minwoo.ju@meritz.co.kr

2021년 전망 시리즈 11 핸드셋/전기전자_Recovery (해설판)

- ✓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 13.6억대(+8% YoY) 예상
- ✓ 스마트폰 업체중에서는 역대급 교체 수요에 기반한 5G 슈퍼사이클을 누리게 될 애플 주목
- ✓ 화웨이의 빈자리는 샤오미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될 전망
- ✓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의한 IT 부품 업체 실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수요 회복과 전장화 가속화에 따른 전장부품 실적 턴어라운드에 더 많은 관심 필요
- ✓ LG전자, LG이노텍 Top-pick 제시

시나리오별 2021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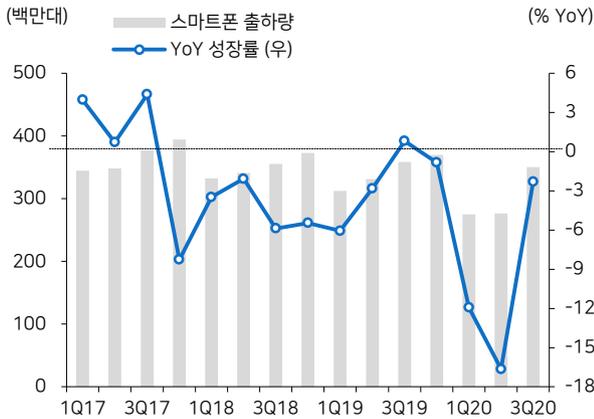
항목	변수	Worst	Base	Best	
추가 결정요인	1. 스마트폰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 ▪ 보조금 ▪ 이동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대비 -10% ▪ 경기회복 지연 ▪ 보조금 지급 小 ▪ 이동제한 조치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13.6억대(+8% YoY) ▪ 경기회복 ▪ 보조금 지급 多 ▪ 이동제한 조치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대비 +10% ▪ 경기회복 ▪ 보조금 지급 多 ▪ 이동제한 조치 無
	2. 화웨이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 제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 제재 소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 제재 유지
	3. 자동차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 ▪ 보조금 ▪ 이동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대비 -10% ▪ 이동제한 조치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자동차 판매 7,550만대(+15% YoY) ▪ 이동제한 조치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대비 +10% ▪ 이동제한 조치 無
산업 투자 전략		비중 축소	비중 유지	비중 확대	
Top-Picks		중목	LG전자, LG이노텍	LG전자, LG이노텍	

2020년 리뷰

2020년에도 스마트폰 역성장은 지속됐다. 1Q20 2.75억대(-11.9% YoY), 2Q20 2.76억대(-16.6% YoY), 3Q20 3.50억대(-2.3% YoY)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역성장은 이미 2018년부터 지속돼왔으나 유독 올해 역성장 폭이 컸다. 3Q20부터는 서서히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오랜만에 스마트폰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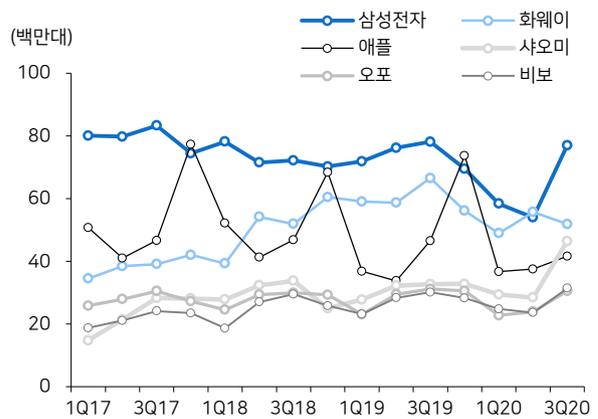
업체별로는 화웨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3Q20부터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영향,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이 3Q20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특징적인 부분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가져간 업체가 샤오미였다. 중저가 포지셔닝이 잘돼있는 샤오미가 내년에도 화웨이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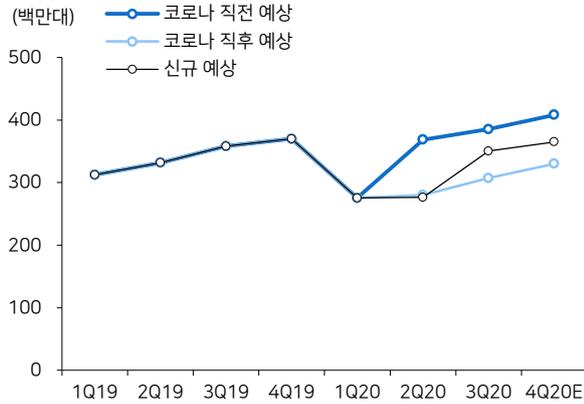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전망

1) 스마트폰 수요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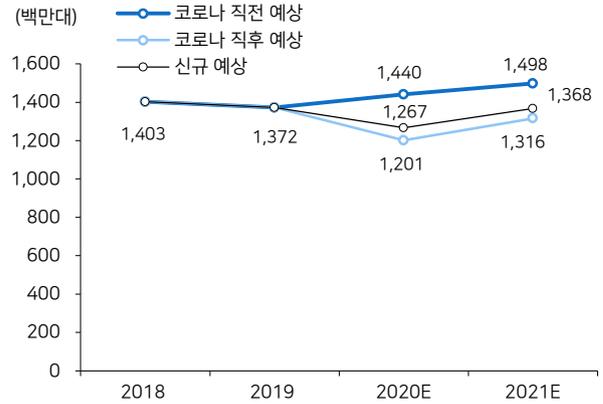
2020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13.6억대(+8% YoY)로 회복 예상하나, 코로나 이전 수준(13.7억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 3.0억대(+18% YoY), 애플 2.2억대(+7% YoY), 화웨이 7천만대(-64% YoY), 샤오미 1.9억대(+38% YoY), 오포 1.4억대(+36% YoY), 비보 1.4억대(+36% YoY)를 예상한다. 판매 성장률은 화웨이 반사수혜를 가장 크게 누리게 될 샤오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수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도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수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출하량 전망

(백만대)	1Q20	2Q20	3Q20	4Q20E	1Q21E	2Q21E	3Q21E	4Q21E	2019	2020E	2021E
Samsung	58	54	79	63	67	74	81	79	269	254	300
Apple	37	38	42	94	62	43	48	72	191	210	225
Huawei	49	56	52	40	17	17	19	16	241	197	70
Xiaomi	29	28	46	34	41	41	63	46	126	138	191
Oppo	23	24	31	30	31	34	41	41	114	107	146
Vivo	25	24	31	28	34	33	42	38	110	108	147
Total	275	276	350	365	304	315	368	381	1,372	1,267	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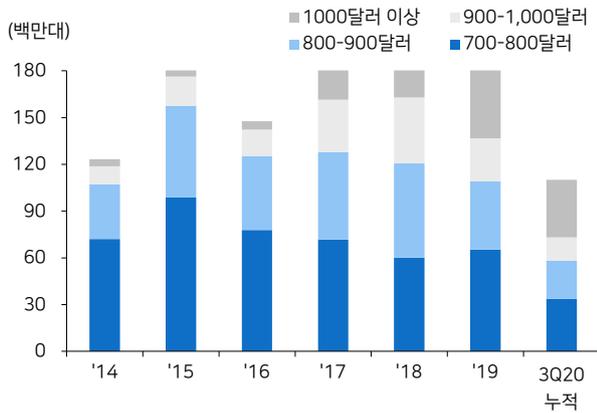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중저가 모델 스펙 상황

700달러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7년째 정체돼있다. 이마저도 전체 출하량의 63%를 애플이, 24%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스마트폰 업체들의 진입이 제한된 시장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영역인 만큼 브랜드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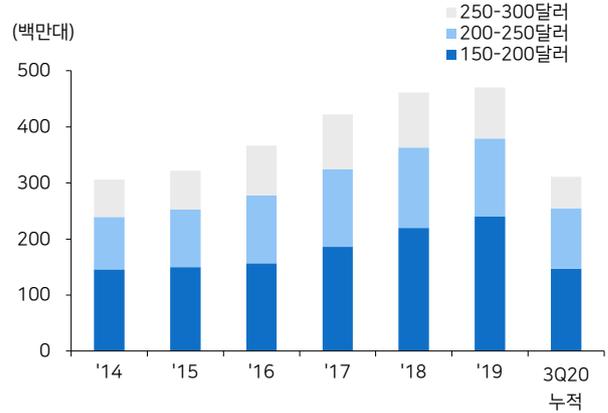
반면 300달러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업체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다. 제품 차별화를 위한 스펙 상향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카메라모듈 부품업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이다.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ODM 비중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ODM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진입장벽이 없는 일반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5 고가 스마트폰 출하량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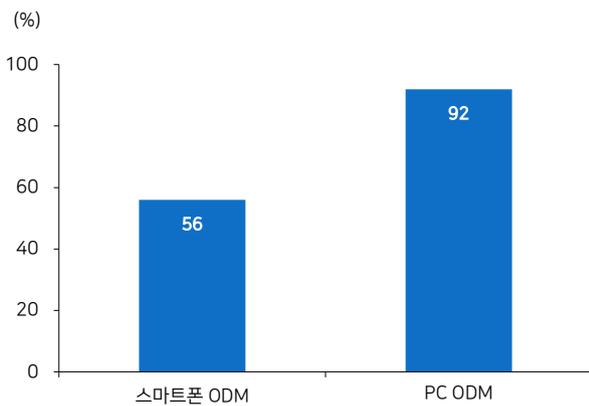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저가 가성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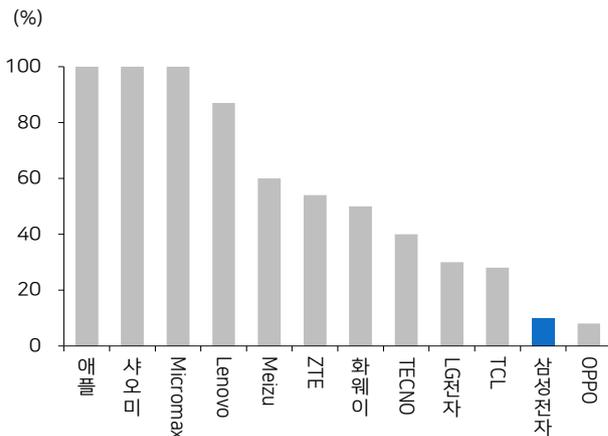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19년 기준 스마트폰과 PC ODM 비중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2019년 기준 스마트폰 업체별 ODM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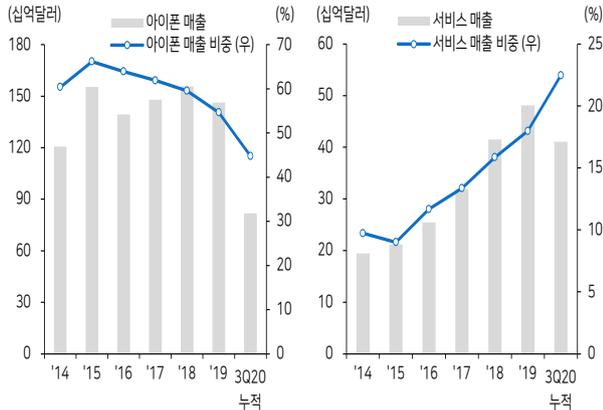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애플의 계획

3Q20 누적 기준 애플 매출 내 아이폰 매출비중은 50% 밑으로 하락했다. 서비스 매출 비중은 25%까지 근접했다. 하드웨어 GP마진이 31%인데 반해 서비스 GP마진은 65%이므로 향후 애플이 집중할 영역은 서비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 가까이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애플에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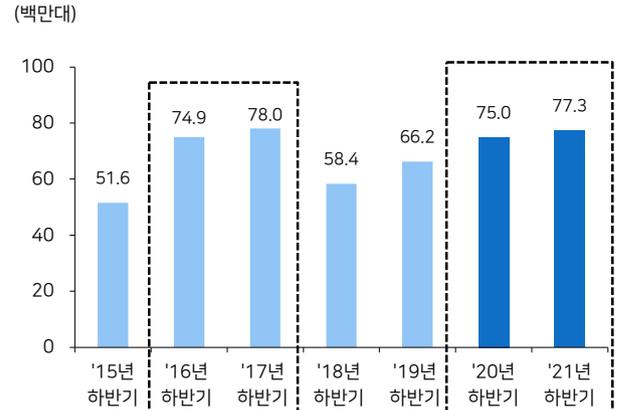
최근 애플은 600달러 중후반대(아이폰11, 아이폰12 mini) 모델을 앞세워 중고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하방 침투하고 있다. 원가 경쟁력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이 원가 절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공급업체 이원화, 삼원화를 통해서, 카메라모듈은 싱글 카메라 형태로 공급방식을 변경해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애플은 역대급 대기 수요를 맞이하고 있어 우호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2016~17년 역대급으로 팔렸던 모델 사용자들이 3~4년차가 되는 올해부터 교체를 시작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림9 아이폰 매출/비중 및 서비스 매출/비중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역대 아이폰 신규모델 판매량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아이폰 카메라 스펙 변화 예상 (메리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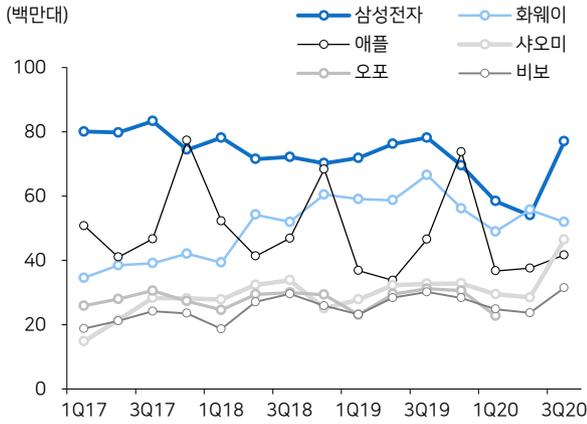


참고: 기술구현 가능 여부에 따라 스펙은 추후 변경 가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4) 화웨이 반사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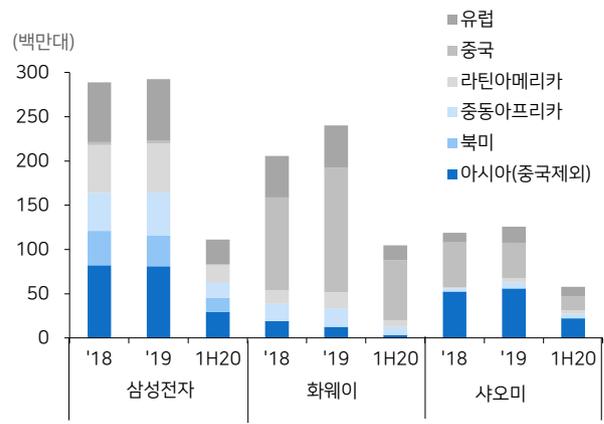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적으로 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핵심인 5G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화웨이의 서비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소비자들의 구매 외면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화웨이의 3Q20 스마트폰 출하량은 나홀로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1.9억대인 출하량은 2021년 7천만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화웨이의 주요 판매 지역과 주요 판매모델의 가격범위를 고려할 때 샤오미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Q20부터 화웨이의 판매감소분을 샤오미가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그림12 스마트폰 Top6 분기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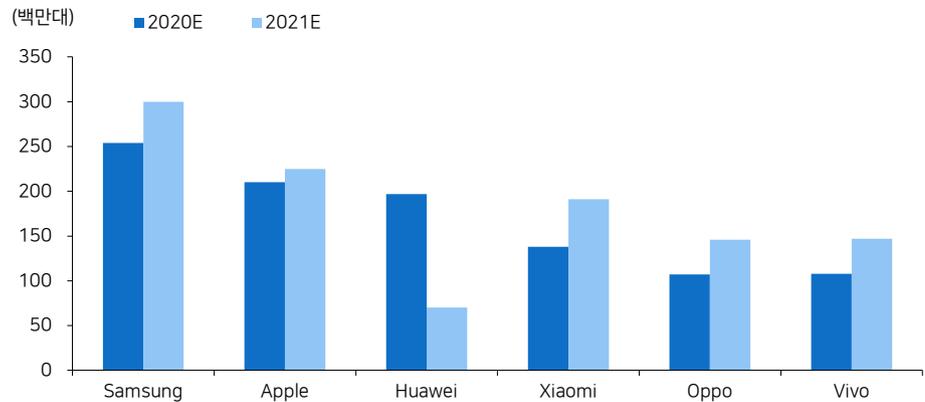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삼성전자 vs 화웨이 vs 샤오미 지역별 출하량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화웨이 최대 반사 수혜 업체는 샤오미가 될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